

전주 삼양사

조 용 태

(교육홍보부 과장)

예향의 도시 전주는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명소가 산재해 있는 전통도시인 고도이다.

근세 조선왕조를 세운 전주 이씨의 발원지로도 잘 알려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삼양사를 찾았다.

삼양 폴리에스텔 트리론의 제조업체인 전주공장은 본공장과 신공장을 합해 약 15만평의 부지에 건설된 첨단

생산설비와 2차례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깔끔한 환경과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고 있다.

경쟁력의 가속과 품질향상을 위해 230여개의 분임조가 중심이 된 개선활동과 공장합리화, 물류합리화를 통해 1995년 5월 ISO인증을 획득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늘리며 무재해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 (주)삼양사의 이번 탐방은 화보협회의 전주지부의 추천을 통하여 우수기업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건물현황

(주)삼양사 전주공장은 1969년 12월에 준공되어 1974년부터 1994년 12월까지 17차에 걸쳐 증설되었으며 현재도 증설이 진행 중이다.



신공장전경

본공장 부지만 해도 10만평에 신공장 부지 5만평과 건물은 본공장동을 위시해 100여동에 이르며 남·여 기숙사가 구비되어 있고 불연 구조이상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사항

이 회사 전주공장은 1969년 단섬 12T/D, 장섬 1T/D의 생산능력으로 출발하여 끊임없는 신소재 개발과 증

설을 거듭, 현재는 종합 1,100T/D, 단섬 530T/D, 장섬 369T/D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폴리에스텔 메이커로 성장하였다.

이 전주공장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섬유 신소재 개발과 해외공장 건설을 통해 2천년 세계 5대 폴리에스텔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화시설 및 관리현황

소화설비로는 각 현장 지역에 따라 소화기 1,400개, 대형소화기 19개가 각 건물별 Plant시설별로 비치되어 초기 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옥내소화전 402개소, 옥외소화전 89개소, 그리고 공장별, 시설별 특수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이산화탄소·할론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점검

체제로 되어 있다.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4,91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공장이 방송망을 갖추고 있다.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안전관리로는 환경안전부 송제기 부장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화안전관리 담당은 6명이 중점적으로 현장밀착, 구역순찰책임제로 1일 5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은 각 과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전주소방서와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방화관리규정 등의 안전에 대한 사내 자체규정과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전·방화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있다.

연 1회 전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정밀점검, 월 2회 라인점검 등 정기점검을 생활화하고 있다.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여부

선진화의 추세와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화재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사장님과 안전 및 화재예방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장장님의 의지 아래 중대재해 위험요소 파악 및 대책실시 여부를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VTR로 촬영하여 사전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화재예방 업무

화재예방에 대한 담당자와 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일성은 ‘화재는 우선이다’ 불씨 하나가 견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로 번지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앗차는 사고다”,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평범한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긴 안이한 생각이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상식적인 것을 철저히 지켜 99%의 안전보다는 1%의 불안을 예방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신을 갖기까지의 회사의 자량을 들여 보면 전임직원이 여러해 동안 꾸준히 화재예방과

무재해의 0% 달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며 또한 전북도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안전부의 인적구성과 그 능력은 (주)삼양사를 안전기업의 대명사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실천예방의 결과는 환경안전을 이끌고 있는 송제기 부장과 안전관리자 이대근 차장(전북도 화학공장협의회 회장, 방화대책협의회장)의 철저한 현장밀착근무와 세밀한 확인점검, 순환구역순찰책임제를 계획성있게 추진한 것이 주효하여 무재해 2배 달성과 함께 현재까지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삼양사의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화보협회의 안전점검을 중요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하고 문제점 발생시 상호협의 해결하는 유대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안전분야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첨단 방재기술과 종합대책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신기술 도입으로 우려되는 새로운 위험발생 요인까지 진단받아 안전사고와 무재해 운동에 종합대책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발전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방재담당 직원 전원에 대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방재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정보회원에 가입하여 새로운 자료를 받아 방재실무에 활용하는 등 돈독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에도 관심을 보여 92~95년 4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도 한 환경친화 기업으로서 타 기업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화재안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고없는 일터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남다른 노력과 시간 및 인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전주공장에서는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하는 섬유 신소재 개발과 해외공장 건설을 통해 2천년 세계 5대 폴리에스텔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무한한 의지와 노력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굴림은 물론 세계시장을 석권해보려는 의지가 엿보임을 느낄 수 있었다.